

'진안고원 사과' 라이브커머스 군민 맞춤형 무료검진 '호응'

21일 오후 2시부터 25% 할인 판매·선착순 구매인증 1+1 이벤트도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오는 21일 14시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 도전라이브 카테고리에서 생방송으로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진행상품은 진안군 관내 사과 농가들을 대표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통하는 사과 5kg(부사 17~18과)로 준비했다.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과는 재배과정부터 선별포장, 출하까지 안전성을 검증받은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 상품이다. 또한, 해발 400m의 준고랭지 청정지역인 진안고원의 지형과 일교차가 큰 기후 덕분에 과육이 탄탄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라이브 시작시간인 14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25% 할인된 특가인 22,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구매인증 선



청정진안 사과 라이브커머스

착순 10명에게는 5kg 사과 1박스를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에 진안군청 먹거리정책팀 직원 및 진안군 사과 공산출하회 소속 농가(백운면 김학진)가 함께 출연해 사과로 만드는 빵소, 사과

코울슬로, 사과조림을 활용한 애플파이 등 다가오는 연말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영양분과 효능 등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진안고원몰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9일동안 '크리스마스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구매금액별 적립금 리워드 지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진안고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은 "우리 군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유통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질병 예방·조기 발견 위해 실시

무주군이 군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민 맞춤형 무료검진이 군민들의 질병예방에 성과를 올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폐암 C-T 검진을 비롯해 2020년 A형 간염항체검사, 2021년 30세 이상 여성유방암 검진,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 2023년부터는 군민 면역력 검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군은 남성 전립선암 검사, 여성 골다공증 검사(2016) 등을 실시하면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 폐암(50세 이상 흡연자 등 군민) 및 골다공증(40세~64세 및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립선암(만50세 이상 남성) 유방암(만30세 이상 여성) 검사를 실시해 사전 건강이상 상태를 점검했다.

군은 건강검사 대상자들에게 대해 건강검진실에 접수 후 영상의학과 촬영, 임상병리 혈액·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 전문의 상담과 상담병원에

진료를 의뢰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보건소의료원에서 조기 검진을 통한 적기치료를 함으로써 무료폐암 검진율이 지난해 보다 4.2% 향상됐으며, 40세 이상 폐경기 여성 등 골밀도 무료검진율도 지난해 보다 4.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0세 이상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진율이 지난해 보다 4.3%가 향상됐으며, 30세 이상 여성 유방암 검진율도 지난해에 비해 16% 향상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는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검진 제공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적기에 치료해 군민 건강수명 연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질병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위험인자를 미리 발견해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군민행복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전북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는 주택·건축 행정 업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총 6개 분야, 10개 항목, 50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주거환경, 주거복지, 건축행정 등 전 분야에 모범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건축행정 분야에서 각각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이뤘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 신속·원활한 군정 추진

장수군,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 12월로 앞당겨 개최

장수군이 19~23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실행력 있는 사업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20개 전 부서가 주요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업무보고를 신년 1월에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12월로 앞당겨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최훈식 군수는 "한발 빠르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여 신년 시작과 함께 사업과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



겠다"며 "각종 현안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 학과 선정 농민 의견 청취

무주군이 내년부터 운영될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을 앞두고 농민 의견을 청취 후 희망학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내방 농업인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2023년도 반딧불 농업대학 학과 선정에 앞서 농업인들의 희망과 소망에 직결되는 희망학과를 발굴하고 더 나은 교육 추진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업대학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과선정 및 운영에 무주군민의 의견이 우선 반영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대학 운영에 무주군민의 의견이 잘 반영 되도록 하기 운영 중에도 학습 만족도, 영농능력향상 평가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발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지)는 19일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이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의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내내 총 10,415건의 화재 중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65건으로 0.6%를 차지하나, 인명피해는 전체 403명중 21명으로 5%를 차지하며 화재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수소방서는 관내 중점관리대상 2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 대책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실시 △다각적 소방훈련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행정 강화 △화재예방 기동순찰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한 의식 강화 방안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민·관 협의체 운영 △소방안전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알람 피드백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촌융복합산업 활로 모색한다

무주군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읍·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통합설명회 등을 갖고 경영전략과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

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무주군 관내 열정농부가 잘 키운 농산물로 직접 제품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판매하고, 치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가소득 및 도농상생의 신산업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군은 19일 무주점통생활 문화체험관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촌융복합산업 이해 및 사례, 전북 농촌융복합센터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안내 받았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를 위해 농협,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자들의 관료가 확대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이래 이 분야에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